

T V

TV 9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2 columns: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Rows list various EBS Plu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여성 공감 발라드 실었어요”

보아 5년만에 국내 컴백 6집 ‘허리케인 비너스’ 발표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보아(본명 권보아·24)는 “가수로 산 10년간 1년씩 쪼개고 아까워 살았다”고 했다. 2000년 중학교 2학년 때 국내에 데뷔, 2001년 일본에 진출해 첫 성공 모델이 됐고 2008년 미국 시장에도 발을 내디뎠기에 이 과정은 1년이 12개월로는 부족한 정도였다는 것이다. 평범한 삶에 대한 그리움을 느껴볼 시간도 없었다고 한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외국 활동으로 인해 최근 발표한 6집 ‘허리케인 비너스(Hurricane Venus)’는 국내에서 5년 만에 발표하는 신보다. 보아는 최근 2년간 미국 시장 개척에 매진했다.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그러나 현재진행형이기에 실패로 단정 짓기 어렵다. “자극제가 됐어요. 음악에 대한 열정도 다시 느꼈고요. 미국의 유명 프로듀서들과 작업하며 음악, 춤 실력도 향상됐고요. 미국에서의 성과보다 가수로서의 역할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이수만 선생님은 제가 달려마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주셨어요.”

그간 해외 작곡가들의 곡을 주로 선보였던 그는 이번엔 김동률, 벨의 김종완, 지누 등 싱어송라이터들을 비롯해 국내 유명 작곡가들과 작업했다. “저와 국내 아티스트가 만났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올까 궁금했어요. 김동률과 김종완 씨의 발라드를 좋아해 제가 곡을 의뢰했죠. 지누 씨는 ‘아브라카다브라’를 듣고 작업하고 싶었어요. 곡수를 채울 음악보다 정말 좋은 노래를 찾고 싶었어요.” 보아는 “타이틀곡은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멋있게 선보일 가장 나다운 곡 ‘허리케인 비너스’로 골랐지만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공감할 음반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20대 이상 여자들이 차에서, 클럽에서, 남자가 속 썩일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듣고 싶은 음악요. 여성들이 공감할 발라드, 신나게 즐길 세련되고 ‘시크한’ 곡들을 넣은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가 이제 새로이 도전할 과제는 연기를 통한 할리우드 진출이다. ‘스텝 업(Step Up)’ 등 댄스 영화 시



나리오를 써 주목받은 듀안 에틀러가 시나리오 및 감독을 맡는 작품에 출연한다.

“가수 생활로도 시간이 빠듯해 연기에 대한 생각이 커진 않았어요. 하지만 댄스 영화인데다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스텝 업’을 만든 분의 작품이어서 끌렸죠. 또 할리우드 진출보다 TV로만 보여주던 제 춤을 작품으로 남길 수 있어 매력적이었어요.”

Advertisement for '제19회 광일盃' (19th Kwangil Cup) Go tournament. Includes a Go board diagram, rul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ommittee.

Horoscope section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Knowing Fate's Today's Fortune). Lists fortun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for the date August 9th.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굿모닝 잉글리쉬' (Good Morning English) with a 'Try it again and again' exercise. 2. '오하요우 니혼고' (Oha-yo-uh Nihongo) with a Japanese phrase 'たくさん飲(の)まないでください' and its meaning. 3. '니하오 쑹구워' (Ni-hao Song-gu-wo) with a Chinese phrase '拆说' and its meaning. 4. '한자 이야기' (Hanja Story) with a story about '烏孫公主(오손공주)' and a list of related Hanja characters.